



이 책자는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남북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북시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북한 방문 준비

1. 초청장 받기	10
2. 북한 주민 접촉 신고하기	14
3. 북한 방문 신청하기	19
4. 방북 여장 꾸리기	32

II

출·입경 절차 및 출입심사

1. 남측 출경 절차	38
2. 북측 입경 절차	39
3. 북측 출경 절차	40
4. 남측 입경 절차	40
5.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1

III

방북시 유의사항

1. 방북자의 기본자세	48
2. 이럴 땐 이렇게	50

IV

지역별 체류활동

1. 평양 지역	62
2. 금강산 지역	80
3. 개성 지역	106
4. 개성공업지구	110
5. 기타 지역	120

참고하기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12
북한방문증명서	21
개성공업지구 출입절차	26
개성공업지구 차량운행	30
면세점 이용	33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42
귀국 시 면세 허용범위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규정	45
안내원과 대화 요령	52
호텔 편의시설 이용	66
국제친선전람관 방문시 유의사항	121
남북한 주요 생활용어 비교	132
통일부 연락처	134

북한상식

북한의 공휴일	11
주체연호, 태양절	49
북한의 언론과 방송	58
북한의 종교시설	74
북한의 술	104
북한의 담배	129
북한의 행정구역	130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초청장, 동의서 등)가 필요하므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에 앞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초청장 또는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한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방북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역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맞남한방문] - [북한방문결과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북한 방문 준비

1 초청장 받기

1. 초청장 받기

통일부에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초청장' 등이라 한다) 등이 필요하다.

초청장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책, 방문목적, 사진 등)과 여권사본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등을 통해 북측에 송부하여야 한다.

초청장 등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문목적, 방문기간, 방문인, 방문동의 의사, 편의 제공, 초청 또는 동의 기관의 서명·날인, 발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대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에서 초청장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초청장 등은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다. 초청장 등이 나오더라도 방북일정에 대해 전화나 FAX를 통해 북측과 사전에 협의·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일정에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북측과 방북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북한의 공휴일이 언제이고 주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측에서는 전국 단위의 기념행사 등으로 초청을 잘 하지 않으며 방북하더라도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측으로부터 초청장 등을 받거나 방북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 접촉을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한다.

북한의 공휴일

북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명 칭	날 짜	명 칭
1.1	설	5.1	국제노동자절
1.1(음력)	음력설	7.27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1.15(음력)	정월대보름	8.15	해방기념일
2.16	김정일 생일	8.15(음력)	한가위
3.8	국제부녀절	9.9	정권 창건일
4.15	김일성 생일	10.10	노동당 창당일
4.25	인민군 창건일	12.27	헌법절

이외에도 농업근로자절(3.5), 어부절(3.22), 철도절(5.11), 탄부절(7.7) 등의 기념일에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하루 쉰다.

참고하기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으로 베이징 지역에서 사회·문화·체육 분야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대남경협은 사실상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주축이 된다. 민경련은 중국 베이징 및 단둥에 대표부가 있으며 민경련은 여러 개의 총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총회사

삼천리총회사 : 전기·전자, 기계, 중공업 분야 등

광명성총회사 : 경공업 분야 등

개선총회사 :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및 모래 분야 등

새별총회사 : 의류 분야 등

명지총회사 : 광물, 금속, 건설, 중공업, 전력 분야 등

광복총회사 : 철도, 도로 분야 등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1998년 6월 북한의 정치·사회·문화·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의 초청장을 민화협이 발급하고 있으나, 종교분야 등 일부 분야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6.15북측위원회 등 각 해당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2 북한 주민 접촉 신고하기

2. 북한 주민 접촉 신고하기

남한 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남한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적(籍)을 가진 사람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로 회합 외에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Fax 등)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의사교환은 모두 포함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고서> 작성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북한주민접촉] - [사전접촉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는 접촉인 인적사항, 접촉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접촉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서, 북한주민접촉계획서, 회사소개서, 북측회사소개서, 중개상사소개서,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표로 1명만 접촉신고서를 작성하되, 나머지 신고대상자(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남한 당사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민원함] - [신고현황]에서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가 '수리'이면 처리완료 상태이다.

2. 접촉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및 연장 신청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북한주민과 여러 번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자에게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서는 접촉신고가 수리된 '접촉의 목적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접촉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별도로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

접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촉신고 수리 시 부가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주민접촉] -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3. 사후 접촉 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사후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후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주민접촉] - [사후접촉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사전계획이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접촉신고 면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접촉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적인 접촉 혹은 정부에 이미 승인을 받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법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3 북한 방문 신청하기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5. 접촉 결과 보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장기간 부여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북한주민접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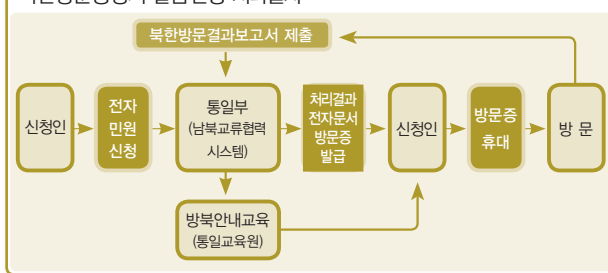
접촉결과 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주민접촉] - [접촉 결과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7일전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방법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한 전자민원신청이 원칙이다.

「북한방문증명서」의 신청이나 수령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때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절차



1. 「북한방문증명서」 신청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 접속한 뒤 [북한및 남한방문] - [북한방문증명서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북한방문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신청만 할 수 있다.

<북한방문증명서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문증명서용 사진,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신청 내역과 처리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민원함] -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철회 및 수정 등도 가능하다. 처리결과가 '승인'이면 처리완료 상태이며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통일부를 방문하여 수령한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북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북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례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거주자 등 방북 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www.uniedu.go.kr)과 필요할 경우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도 있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후 북한을 방문할 때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발급받은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증명서재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하기

북한방문증명서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 일회성 행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

복수방문증명서

-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3. 남북한 방문

방문승인을 받은 자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북한을 방문해야 하며, 방문기간 내에서는 한 차례만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자,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등이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내에서 별도의 방문 승인 없이 여러 차례 남북을 왕래할 수 있다.

4. 승인 취소

방문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북한방문이 제한 될 수 있다.

승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 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5. 방문기간 연장 신청

북한 방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기간연장] 메뉴를 이용한다.

6.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수방문증명서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증명서유효기간연장] 메뉴를 통해서 한다.

7. 출입통행계획 신청

육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승인 이후 <출입통행계획서>를 반드시 방북 3일(72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통행계획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및남한방문] - [출입통행계획 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한다.

또한 자가 차량으로 육로(경의선 출입사무소,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동차운행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5일 전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수송장비운행] - [자동차운행] - [승인신청] 메뉴를 통해 자동차운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증명서」는 자동차운행 승인이 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portal.customs.go.kr)으로 필요한 정보가 이관되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승인 확인 후 「통행차량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9. 북한 방문 결과 보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에 따라 방북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결과보고] 메뉴를 이용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8.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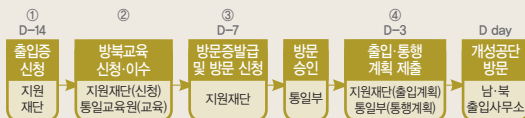
재외국민이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를 의미한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출발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 신고'를 하고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참고하기 개성공업지구 출입절차

개성공업지구를 방문 하려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지원재단 업무대행)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체류증, 거주증)」과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북한방문증명서」가 필요하다. 구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 중 방북안내교육과 「출입증」 등의 신청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 차량은 (수송장비운행승인증·남북간통행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성을 출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북일정에 대한 출입·통행계획을 통일부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체류·거주 등록증) 신청 및 발급

개성공업지구 출입을 위해서는 먼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이 필요하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s.kidmac.com)을 통해 인원정보를 등록한 후 출입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까지 통상 7일 가량 소요된다.(주말 포함, 북측 휴일 제외)
체류기간에 따른 출입증,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출입증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
발급대상	7일 이내 체류자	90일 이내 체류자	1년 이내 체류자
수수료	2,000원	US\$35	US\$100
			US\$200

일반 방문자, 투자자, 행사 참가자 등은 북측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필요하다. 초청장 발급을 위해서는 방문 희망 약 1개월 전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www.kidmac.com)의 [온라인민원] - [개성공업지구방문] - [방문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문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입지원팀(02-2095-5331)

② 방북안내 교육 신청 및 이수

개성공업지구를 최초로 출입할 때는 반드시 방북안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북안내 교육은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정례교육],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사이버교육], 출입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영상교육] 등이 있다. 정례교육은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을 통해 교육희망일 1주 전 목요일 12:00까지 신청하면 된다.

- 교육 장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4,19길 275)
Tel 02-901-7052
- 교육 시간 : 격주 목요일 14:00~17:00
* 교육시간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교육은 사이버방북안내교육 사이트(<http://cvg.uniedu.go.kr>)에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본인이 가입하여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참고하기

개성공업지구 출입절차

- 문의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Tel 02-901-7173

영상교육은 출입 2일전까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한 교육날짜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문의 :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
Tel 031-950-5070

③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을 통해 출입증이 신청되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일괄적으로 해당 출입증 명단을 취합하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 방문승인신청을 한다.

통일부는 심사 후 방문승인을 하며, 출입인원이 기존에 유효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방문증명서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개성공업지구 출입이 가능하도록 발급된다. 따라서, 유효방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인원의 경우 출입증 발급기간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출입인원이 기존에 유효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통일부는 방문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 방문승인을 한다. 방문승인의 처리기간은 3일이다.

- 문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사무소
Tel 031-950-5178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
Tel 02-3783-7421

④ 출입계획 및 통행계획 제출

개성공업지구 출입을 위해 출입증 발급, 방문안내교육 이수, 방문증명서 신청(방문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개성공업지구 출입을 위한 출입계획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통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통행계획을 제출하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출입계획을 작성하여 북측에 전달한다. 그러나 체류 중인 인원의 복귀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온라인출입시스템에 각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향후 모든 출입·통행계획 관련 신청절차가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 상에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문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사무소
Tel 031-950-5187~9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
Tel 031-950-5061~4

참고하기 개성공업지구 차량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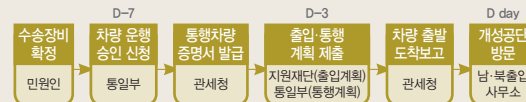
물자와 인원의 수송을 위해 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려면 「수송차량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송차량운행승인서」 신청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수송장비운행] 메뉴에 신청하며 <운행계획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문의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Tel 02-2100-5828

통일부에서 자동차운행 승인이 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portal.customs.go.kr)으로 필요한 정보가 이관되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승인 확인 후 「통행차량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개성공단 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차량심사대 세관에게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출입확인서>에 심사인을 날인 받아야 하며 차량 출입신고를 위하여 <출발·도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발·도착 보고서>는 사전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방북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차량에 「전자운행증」을 부착하면 남북출입사무소 차량심사대에서 자동으로 심사되어 「통행차량증명서」와 <출입확인서> 제출이 생략된다. 2008년 8월 18일부터 차량 운행승인 신청 시 자동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기존 운행 차량은 「전자운행증」 교체신청을 하면 발급된다.

「전자운행증」 교체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의 '전자증명서 신청·수령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전자운행증」발급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팀 Tel 02-3783-7439

4 방북 여장 꾸리기

1. 소요 경비

북한에서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체류비 등의 비용을 미달러(\$)나 유로(€) 등의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평양 지역에서는 미달러(\$)와 유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금강산 지역과 개성 지역에서는 미달러(\$)를 사용한다.

여행경비 중 일부는 소액권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며 북한 지역에서는 송금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비용은 약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평양 지역의 고려호텔 등 일부 호텔과 만수대창작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리 측에서 운영하는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호텔 등에 자신이 소지한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와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2. 복장과 휴대품

옷은 정장, 일상복, 실내복을 구비하며, 휴대품은 일반적인 해외 출장과 같이 준비(화장품, 담배, 상비약, 면도기, 치약과 칫솔 등)하되, 여행용 가방 1개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짐을 찾을 때 매우 혼잡하므로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북한의 전기는 우리와 같은 220V이므로 전기면도기, 모발건조기 등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건전지로 작동되는 것을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하거나 건전지를 충분히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전기콘센트의 경우 220V를 사용하지만, 1자형 플러그를 꽂는 전기 콘센트 등도 있으므로 1자형 플러그를 준비해 가면 편리하다.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의 휴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경의선으로 방북 시 북측출입사무소에서 필름카메라는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디지털카메라는 반입가능). 또한 교배율의 망원 렌즈(160mm 이상)가 달린 카메라는 북한의 반입제한 품목이다.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에 사용할 필름(메모리카드)과 테이프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참고하기 면세점 이용

방북 시 지참할 선물이나 기타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 건전지, 필름 등을 구입한다.

단, 남북간의 직항로를 통하여 방북할 경우에는 국내 공항의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입국 시 술과 담배, 선물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휴대전화는 북측에서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내에 두고 가도록 한다.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평양공항에서는 세관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억류증)을 받아 두었다가 출국 시 찾아야 하며, 경의선 또는 동해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남측 출입사무소에 맡겨 두었다가 돌아올 때 찾아야 한다.

방북하는 관광객 또는 사업자는 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 동해선) 출입심사 과정에서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 사용하기에 적절한 생활용품이나 실용적인 것으로 준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액의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출·입경 절차 및 출입심사

북한을 방문하는 경로는 남북간 직접 왕래하는 경로와 제3국을 이용하는 경로가 있다.

남북한 직접통로는 육로, 항공로, 해로를 이용할 수 있는 데 육로는 경의선 출입사무소(개성지역 방문자)와 동해선 출입사무소(금강산 지역 방문자)를 이용하고, 남북 직항로는 인천·김포 공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로는 주로 인천항, 속초항, 부산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왕래자는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 장소에서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경 심사는 신원확인, 휴대품 검사, 방문 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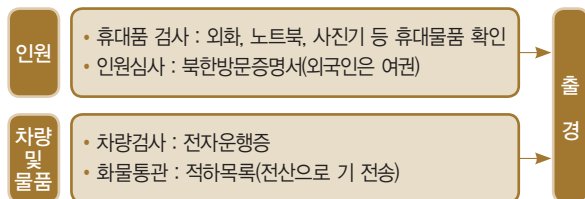
제3국을 통한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로이며, 이 경우에는 중국 입·출국을 위한 중국 비자(복수)와 북한 입국을 위한 북한 비자가 필요하다.

본 책자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육로 방북에 대해서만 안내하도록 한다. 육로 방북은 개성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이용하게 된다.

출·입경 수속은 국제선 출·입국 수속과 유사하나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방문증명서」(관광객은 「관광증」)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외국인인은 여권을 사용한다.

1 남측 출경 절차

출경 예정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경의선 출입사무소나 동해선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세관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원(법무부)과 물품(관세청) 등에 대한 출경심사를 받는다. 검역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출경심사를 마치면 북측 출입사무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며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까지는 우리 측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부터는 북측 군부가 안내를 담당한다.

2 북측 입경 절차

북측 출입사무소(통행검사소)에 도착하기 전에 북측 세관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1차 확인을 실시한다. 이 때 탑승자는 하차하여 북측 출입사무소로 이동한다.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면 출입심사를 받게 되는데 방문 목적이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증」, 「출입증」,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 「관광증」 또는 「방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인원심사를 받는다. 초청기관이나 방문 목적 등을 물어 볼 때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된다.

인원 심사를 마치면 수하물 심사를 받게 된다. 수하물은 X-ray 검사대를 통과하며 검사를 받게 되는데, 북측 세관원이 수하물 내부를 검사하기 위해 개봉을 요구하면 당황하지 말고 수하물을 열고 보여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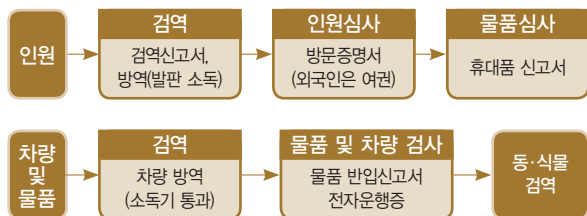
통관 시 북측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금지(제한) 품목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카메라(160mm 이상) 등을 소지하고 입경하였을 경우에는 북측 출입사무소에 맡기고 귀환 시 찾아 나오게 되나, 상황에 따라 압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북측 출경 절차

북측에 통보한 귀환시간에 맞추어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출입 및 세관 심사를 받는다. 이용차량에서 내려 개인 휴대품을 소지하고 세관 및 출입 심사를 받으며 인원명단 확인은 북측에 통보된 출입계획서에 의하여 진행된다. 세관 및 출입 심사를 마치면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에 맞춰 군사분계선을 통과한다.

4 남측 입경 절차

남측 지역에 입경할 때는 휴대품신고서, 검역신고서를 제출하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X-ray 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받는다. 북한에서 동·식물을 가져왔을 때에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



5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 차량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동차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운행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5일 전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수송장비 운행] - [자동차운행] - [승인신청] 메뉴를 통해 <자동차운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증명서」는 자동차운행 승인이 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portal.customs.go.kr)으로 필요한 정보가 이관되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승인 확인 후 「통행차량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차량에 「전자운행증」을 부착하면 차량 심사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통행차량증명서」와 <출발·도착 보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구분	자동차운행승인서	통행차량증명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계획서 자동차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운행승인서
발급기관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관세청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연락처	02-2100-5828	02-3438-1133

참고하기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남 한

반입 금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화폐, 수표, 어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반출 금지

- 반입금지 물품
-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반출·반입 제한

-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
- 검역대상 물품
- 「전라목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 품목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반입금지·반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과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등 규제물품 및 이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응답, 사향, 호골, 뱀술 등)
- 기타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북 한

반출·입 금지

-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흥기
- 독약, 극약, 마약,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핸드폰·배터리·충전기, 차량 GPS 장치, 라디오, 녹음기, PDA, 무선기기, 저장장치 등

반입 금지

- 10배 이상 배율의 쌍안경·망원경, 160mm 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줌(광학기 준) 이상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카메라
-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 인쇄물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 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개성 지역)
 - 문화생활 및 편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수량을 제외한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화테이프(금강산 지역)
- 개인 치료목적의 것을 제외한 상표와 설명서가 없어 그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품 및 상품
-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 체제비판 책자, 신문, 달력 등
- 기타 관광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반출 금지

- 역사유물
-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 녹화 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참고하기 귀국 시 면세 허용범위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다음의 특정 물품을 포함하여 연도별 4회, 1회당 전체 취득 가격이 300\$ 상당액 이내인 물품은 면세된다.(단, 만19세 미만인 경우 주류·담배는 제외)

- 주류 : 1병(리터 이하)
- 담배 : 껍련 200개비, 엽결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g
- 향수 : 2온스(약50ml)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총량 50kg, 전체취득가격 10만원 이내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5kg 이내
 - 잣 1kg, 소고기 10kg, 기타 품목당 5kg 이내
 - 인삼·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품목당 3kg 이내

참고하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규정

위반 내용	처벌 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및 미수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27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자 및 미수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및 미수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및 미수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 장비를 운행한 자 및 미수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27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의 반출·반입,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수송장비 운행 승인을 받은 자 및 미수범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신고를 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8조의 2)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북한주민 접촉, 협력사업 범위 등 조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협력사업의 시행내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방북시 유의사항

1 방북자의 기본자세

방북자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긍지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방북자의 말과 행동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방북자는 사업 등 방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원칙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방북 시 불필요하거나 방북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북측 안내원이나 초청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방북 목적 이외의 돌출 행동으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북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용어나 어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 사람들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의문이 있을 때는 말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노인을 흔히 ‘늬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용어이므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북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 없습니다’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편찮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북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와는 법과 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체제상의 문제로 통제와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각별히 경계심을 갖고 언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방북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과 행동으로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항상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방북자가 언동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간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북한 체류 시에는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야간에는 숙소 이외 지역에서의 외부활동이나 이동을 삼가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지역은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체제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민감하거나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일상적인 화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 음주·가무 등 소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삼가고, 농담·비속어·반말 등의 사용도 자제하도록 한다.

주체연호, 태양절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채택하고, 그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정하였다. 2010년은 주체 99년이 된다.



1. 호칭 문제

방북 시에는 이름이나 직책 뒤에 일반적으로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호칭할 경우에는 국방위원장 등 객관적인 명칭으로 호칭하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북과 남을 지칭할 때는 '북측', '남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안내원과 관계

일반적으로 남북 교류 등을 위하여 방북을 하게 되면 북측 초청 기관 담당자와 함께 통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내원이다. 안내원은 북한에 입국할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며 일행을 안내한다.

안내원을 우리는 관광안내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북한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안내원이라 하여 단순히 안내를 담당하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내원이 남측 인사를 위해 일정 협의 등 북한에서의 활동 편의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다른 남측 사업자의 업무 담당자일 경우도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안내원이 한 사람만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방문 단체를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행동을 같이 한다. 한 사람이 방문을 하여도 두 사람의 안내원이 배정될 수 있다. 두 사람 중 한 명의 안내원과 대화하기보다는 안내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안내원 사이에도 명확한 위계질서가 있으므로 일정, 요청사항 등의 공식적인 필요 사항은 안내 책임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들에게 방북 목적 외에 친척 상봉 등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본래의 방북 목적과 다르므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업상 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어디를 방문할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안내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들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측의 일반적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화에 임해야 한다.

참고하기 안내원과의 대화 요령

안내원을 호칭할 때는 안내 선생, OO 선생 등으로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일반적으로 대화 중에 가장 흔한 주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언제 결혼하였느냐?”, “아이가 몇 명이나?”,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등의 일상적인 가족 이야기는 무방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등 지나치게 깊은 질문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집에 OO은 있느냐?”, “한 달에 월급은 얼마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 등)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 등 사업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그런 방면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원들이 방문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어 보지 않고 일행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업무적인 범위에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일을 잘 한다는 정도의 일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학력이나 경력관계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이러한 대화는 사적인 자리나 술자리 등에서 오고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3. 관람지에서

평양에 도착하면 북측에서 특별한 관람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평양 도착 첫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방문객을 태운 버스나 승용차는 거의 대부분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동상을 둘러게 된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수산기념궁전(김일성 시신 안치), 혁명열사릉(김일성 일가 및 항일빨치산 출신인물 매장), 애국열사릉(사회주의 건설유공자 및 남조선혁명가 매장) 등을 방문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런 곳은 주로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장소이며 불필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국해방승리기념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김일성 동상 등 북한의 체제선전 시설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헌화와 참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숙소에서

호텔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연락이나 대화 이외의 불필요한 이야기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TV를 시청하거나 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말하지 않도록 한다.

장시간 호텔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방 청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에 보관한다.

5. 식사나 술자리에서

오찬이나 만찬 시에는 주최 측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놓는 경우가 자주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으므로 자기의 주량을 감안하여 마셔야 술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술에 취하여 불필요한 언쟁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남한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의를 지키며 방북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행 중 술이 약해서 취한 사람이 있으면 숙소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6. 오락시설에서

호텔 바나 기타 시설에서 안내원들과 술을 마시거나 어울리는 사적인 자리라도 정치적인 화제나 민감한 사안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 없이 우리 일행만 어울릴 때에도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좋다.

7. 상점, 호텔 등에서 돈을 지불할 때

보통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계산소에서 값을 치루고 전표를 받아와 그 전표를 판매원에게 주고 물건을 받는다.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영수증을 품목별로 달라고 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혹시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요구하면 된다.

숙박비용이나 호텔에서의 기타 비용은 보통 출국 전날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하고 중간에 대략의 비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숙소에서의 요금 지불은 일행 중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최종 계산을 확인하는데 쉽고 오해의 소지가 적다.

북한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규격화 되어있지 않다. 주로 빈 종이나 양식에 금액을 적고 상점이나 상호의 도장을 찍는다. 도장이 있어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출국 시 북측 세관원 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은 잘 보관 해 둔다.

8.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촬영 전에 안내원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방북 목적 이외의 시설이나 북한 주민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군인이나 군사시설물은 촬영하지 않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방북 중 촬영한 사진을 북한을 떠나기 전에 모두 확인한다.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인화하게 한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은 사업상 필요성 등을 안내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삭제를 미리 막는 것이 좋다.

비디오 촬영의 경우에도 사진 촬영과 마찬가지로 북측 안내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비디오 촬영 역시 안내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삭제될 수 있다. 비디오 촬영은 연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9. 차 안에서

승용차나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안내원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리나 건물의 이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원들에게 문의하면 된다.

차가 이동 중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 하는 것은 삼가도록 한다.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나 일반 북한 주민들을 촬영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0. 산행할 때

금강산이나 묘향산 등을 등반할 때는 동료들끼리 큰 소리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바위에 새겨진 문구나 비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한다.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관련된 비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김부자가 직접 다녀간 곳에는 별도로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산행 중 간혹 북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간단한 목례를 건네는 정도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무난하다.



북한의 언론과 방송

신문, 잡지

신문은 대부분 기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노동신문(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내각 기관지) 등이 있으며 일반 사설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없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은 노동신문으로 비행기 기내 및 호텔에서 볼 수 있다. 노동신문은 보통 8~12면(특간호 : 김부자 생일, 명절, 국가적 특정일)으로 구성되며 가판대에서 판매되지 않고 기관 및 단체별로 배달된다. 영문지로는 'The Pyong Yang Times'가 있다.

잡지로는 '근로자', '천리마', '조선화보', '사회주의 생활문학', '조선문학', '조선', '금수강산',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등 30여종이 있다.

TV 방송

TV 방송은 북한 전역 및 해외에서 시청할 수 있는 조선중앙 TV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만수대 TV, 교육문화 TV 등이 있다. 만수대방송의 경우에는 시청 범위가 평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말에만 방송을 한다. 교육문화 TV는 교육, 문화, 체육 관련 전문 채널이다. 북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한과 다른 PA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디오나 영상물의 경우에도 PAL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남한의 기기로는 볼 수 없다.

라디오 방송

라디오 정규방송은 조선중앙방송국, 평양방송국, 평양 FM방송, 제3방송(유선 : 내부비판, 중대방송) 등이 있다. 주로 조선중앙방송을 청취하게 되며 평양 FM 방송은 92.5Mhz와 105.2Mhz 두 가지로 저녁부터 하루 13시간 선전가요와 외국음악 등을 방송하고 있다.

통신사

유일한 통신사로는 조선중앙통신사(KCNA)가 있다. 이 통신사는 노동당 및 내각의 공식적인 대변기능을 하고 있다.



IV

지역별 체류활동

1 평양 지역

1. 방문 첫날

평양공항에서 숙소까지 북측 초청기관에서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대표단의 인원수에 따라 승용차나 승합차, 버스를 이용하게 되며 단장에 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승용차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평양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중에 북측 초청기관 안내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다.

숙소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권과 입국사증(비자), 고려항공 항공권을 북측 안내원에게 맡기게 된다. 항공 일정의 재확인, 평양공항 이용권 구입 등을 모두 북측 초청기관 안내원이 맡아서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국사증은 여권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급하여 분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양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입국사증을 회수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숙소에서는 방 배정 전에 호텔에 1등실~3등실 중에서 1인방과 2인방을 몇 개 사용할 것인지 알려주고 호텔에 따라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층과 높은 층 중 어떤 곳을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 준다.

방 배정이 끝나면 북측 안내원과 체류기간 중에 진행할 일정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조율하고 방문하나 최종 결정은 방북 후 이루어진다. 만일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첫 날 제안하여 조율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도착 첫 날 북측 초청기관 주최의 환영만찬이 진행된다.

2. 숙소

방북 전에 북측 초청기관과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북측에서 미리 정해놓은 숙소에 머물게 된다. 대부분 남측 대표단은 고려호텔, 양각도호텔, 보통강호텔에서 숙박하나 간혹 다른 호텔이나 초대소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숙소 밖에 나가길 원할 경우에는 북측 안내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숙소 내 편의시설은 도착하는 첫 날에 위치, 이용 시간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짧은 체류일정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고려호텔, 양각도호텔, 보통강호텔의 체류 비용은 3등실의 경우 1일에 100유로 정도이다.

고려호텔(특급)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평양역이 있다. 1985년 8월 건설된 대표적인 특급호텔로서 연면적 8만 4천㎡에 45층의 쌍탑식 건물(높이140m)이다.



고려호텔

지하 1층~지상 3층에 식당, 서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을, 4층~43층에는 500여 개(1등실 54개, 2등실 222개, 3등실 22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1,000명이다.

특히 44층~45층은 회전전망대로 된 식당으로 평양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우나, 수영장, 노래방, 당구장, 찻집, 상점, 식당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양각도호텔(특급)

평양시 호텔 중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1995년) 현대식 건물로 대동강의 섬인 양각도에 자리 잡고 있다. 양각도는 '소의 뿔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섬에는 평양국제영화관과 양각도축구경기장이 있다.



양각도호텔

호텔 맨 위층인 47층에는 둥근 모양의 회전식당이 있어 창가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평양시내를 볼 수 있다. 총 1,001개(특실 10개, 1등실 23개, 2등실 90개, 3등실 87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보통강호텔(1급)

보통강변의 호반과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9층 건물의 호텔로 1973년에 건축되었다. 다른 호텔에 비하여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어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소 낡았으나 개보수 이후 숙박비가 고려호텔의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방수는 총 161개로 이 중 91개가 3등실이다.



보통강호텔

외국인 및 남한 사람들이 고려호텔과 더불어 가장 많이 찾는 호텔

로 장기 투숙객들이 많이 머문다. 객실에서는 CNN, NHK, CCTV, STAR TV 등 외국방송 시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하나'라는 케이블방송이 거의 24시간 북한영화를 방영한다.

호텔 내에 당구장, 가라오케, 바, 서점, 상품판매점 및 기념품점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주변에 안산관, 청류관 등 식당 및 창광원과 락원백화점이 있다

청년호텔(1급)

광복거리와 청춘거리 교차점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삼각형 모양으로서 30층 건물이며 방수는 총 465개이다. 주변에 평양 교예극장이 있다.

서산호텔(1급)

1989년에 개장한 30층 건물(객실 수 513개)로 청춘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호텔 근처에 각 종목의 경기관이 있어 국내·국제 경기들을 볼 수 있다.

량강호텔(1급)

청춘거리의 대동강 끝 지점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6개 동(총 객실 330개)의 독특한 건축형식을 가진 호텔이다. 호텔 앞으로 대동강이 흐르고 두루섬과 쑥섬이 바로 앞에 있다.

평양호텔(2급)

1961년에 문을 연 오래된 호텔로 중구역 오탄동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맞은편에 평양대극장이 있으며 주변에 이용 가능한 아·미용실 등 부대시설이 많다.

참고하기 호텔 편의시설 이용

팁과 빨래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팁이 없다. 호텔도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상 공무원과 같다. 다만 떠날 때 조그만 선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의 경우 팁을 받고 있다.

호텔에서의 주문빨래도 가능하다. 주문빨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호텔 방에 있는 빨래주머니를 이용한다. 주머니에 빨랫감을 넣어두면 계산서와 함께 세탁된 옷들이 방까지 배달된다.

비즈니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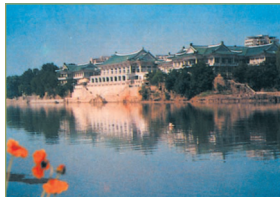
국제전화 및 팩스의 송수신 및 우편업무를 취급한다. 복사도 가능하지만 요금이 비싼 편이다.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국제우편취급소 혹은 호텔에 있는 우편물 취급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낼 국가와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북한에는 DHL사무소가 있어 수하물을 발송할 수 있다.

3. 식당

식사는 호텔 내 식당이나 외부에 있는 남측 인사 출입이 가능한 곳을 이용하게 된다. 꼭 가보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첫 날 일정 협의 시 미리 제안하는 것이 좋다.

옥류관

평양 중구역 대동강변에 있는 북한 최대의 음식점으로 1960년대에 개업하여 본관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하였다. 항상 북한 주민과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곤 한다.



옥류관

여름에는 노대(발코니)에서의 식사도 가능하며 대동강의 풍치를 즐길 수 있다. 주요 메뉴로는 평양냉면, 온면, 쟁반국수 등이 있고 그 외에 지짐, 탕류, 고기류, 서양음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면은 보통 1인분에 200g이며 100g 단위로 추가 주문할 수 있다. 전체 요리로 녹두지짐이 나오며 그 외의 요리는 주문하면 된다. 후식으로는 차와 아이스크림이 제공된다.

청류관

평양 중구역 보통강변의 빙상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여객선이 보통강 위에 떠있는 듯한 녹색의 원형 건물이다. 공간이



청류관

넓어(내부 1,000석, 외부 600석) 단체식사가 가능하며 신선로가 유명하다. 주변에 빙상관과 평양실내체육관, 창광원이 있다.

안산관

보통강변에 위치하며 보통강호텔에서 운영한다. 2~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원형식당 1층의 단고기식당과 2층의 해산물식당이 유명하다. 특히 단고기 식당은 부위별로 단고기 요리를 판매하고 맛도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며, 해산물식당의 동태탕은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대로 깊은 맛을 자랑한다. 별채에 일식당도 있으며 안산관 경내는 연못과 나무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

평양단고기집

통일거리에 위치한 단고기 전문 식당이다. 각종 부위요리를 주문할 수 있고 5첩, 7첩, 9첩 등의 코스요리를 주문할 수도 있다. 단고기 외에 동태탕 등의 요리도 판매하며 식당 안에 노래반주기가 있어 노래를 부르며 즐길 수도 있다.



평양단고기집

민족 식당

평양시 중구역 국제문화센터(윤이상 음악당)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호텔에서 가까우며 인근에 평양의대가 있다. 구이류, 탕류, 해산물, 냉면, 추어탕 등 다양한 메뉴가 있고 가수들과 접대

원들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옛적부터 내려오는 궁정요리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은반 식당

보통강변 빙상관 뒤에 위치하며 생선회, 구이류, 탕류 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다. 역사가 깊은 식당은 아니나 현대식 실내장식으로 식당 내 분위기가 좋고 특별히 불고기의 선도가 좋아 구이류가 인기 있으며 부위별로 주문할 수 있다. 그 외에 토장국, 냉면, 섭죽, 잣죽 등 주식류도 다양하다.

아리랑 식당

평양호텔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구이류, 탕류, 일식, 정식 등 각종 요리가 가능하다. 현대식 실내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창광 외국인숙소 식당

중구역 외국인숙소에 위치한 식당이다. 1층에 화면반주장식당에는 구이류, 지짐, 전골류 등 다양한 요리가 있으며 특별히 전골요리의 맛이 좋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1층 부속건물에 있는 일식당에는 일식우동, 돈까스, 카레 등의 일본 음식과 냉면 등의 북한 음식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 2층에도 화면반주장이 있다.

호텔 식당

고려호텔, 양각도호텔, 보통강호텔 등에는 다양한 식당이 있다. 고려호텔은 1층에 불고기 식당, 민족 식당이 있고 부속건물 지하에 일식당, 1층에 단고기 식당, 2층에 샤브샤브 식당 등이 있으며 만장(44층 전망대)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양각도호텔도 1층과 지하에 식당들이 있으며 만장(47층 전망대)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보통강호텔은 1층에 양식당이 유명하고 부속건물에 불고기 식당이 있다.

4. 교통

방북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초청기관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며 지하철역을 관람하고 한 구간 정도 지하철을 시승하기도 하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차 방북 시에는 별도의 차량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때로 방북의 목적에 따라 초청기관에서 차량 이용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북측 안내원과 협의하여 1일 1대에 100\$정도를 지급한다.

5. 통신

호텔 객실에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 단, 남한으로의 전화는 불가능하므로 급한 연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국을 통하여 연락해야 한다. 객실에서 직접 국제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환원에게 부탁하면 된다.

또한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팩스 송수신이 가능하며, 먼저 신청서에 상대국가와 번호를 기입하고 팩스를 송신한 후에 송신료를 지급한다. 외부에서 팩스가 수신되었을 경우 객실로 연락해주며 수신문건을 받은 후에 수신료를 지급한다.

6. 상점

평양에는 평양제1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락원백화점, 광복백화점 등의 백화점이 있으나 방북자의 경우 대부분 북측 초청기관이 안내하는 외화상점을 이용하게 된다. 모든 상점들은 고정된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호텔 내 상점, 외화상점(금강산판매소, 대성수출품전시장 등), 만수대창작사 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등의 관람지 매대에서 구입한다.

선물 구입 시 술의 경우 중국을 경유하여 귀국하게 되면 중국 세관의 술 면세 허용범위(1.5ℓ 이하 2병)를 초과할 경우 압수 등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방북기간 중 필요한 간단한 물품들(속옷, 간식 등)은 호텔 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책방에서 각종 서적과 음반을 구입할 수 있다. 관광용 책자의 경우는 종이 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나 일반 서적의 경우는 종이 질이 떨어지고 인쇄 상태도 좋지 않다. 음반의 경우는 테이프와 CD로 된 음반을 같이 판매하는데 선전가요 및 각종 민요를 담고 있다.

일부 공연물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비디오 테이프는 VHS와 BETA 방식의 두 종류가 있다. 또한 출력방식에 따라 NTSC와 PAL 방식이 있다. 한국은 NTSC를 사용하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음반 및 서적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 선전이나 찬양과 무관하고 남한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소량의 여행자 휴대품은 세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통관될 수 있다.

방북 기간 중 구매한 물품의 경우 평양공항 출국 시 영수증 제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의료 서비스

체류기간 중에 치료받을 일이 생기면 즉시 안내원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려호텔의 경우 의무실이 있으며 다른 숙소 에 숙박하는 경우도 상태에 따라 의사가 방문하여 진찰과 투약을 해주기도 한다. 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원들이 조치 하여 평양 내에 있는 중앙급 병원(적십자병원, 평양의대병원, 김만유병원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평양에 비해 의료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평양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우선 안내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따라 평양으로 돌아와서 외국인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연로하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위중하거나 치료가 어려울 경우 국내로 후송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약과 의료장비가 매우 부족하므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약을 휴대하여야 하며 일반인들도 비상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8. 종교 활동

북측 안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체류기간 중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는 매주 일요일 10시에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예배에, 천주교 신자는 장충성당의 미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불교 신자는 체류일정에 따라 묘향산 보현사나 동명왕릉에 있는 절 등에 갈 수 있다.



북한의 종교시설

기독교

평양에는 두 개의 교회와 가정 예배처가 있다. 봉수교회는 1988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만경대 구역 봉수동에 있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서 자재 및 기술을 지원하여 지상 3층, 예배실 1,200석, 첨단 영상음향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2007년 12월에 재건축하였다.

칠골교회는 1992년 만경대구역 칠골동에 세워졌으며 약 100석 규모의 예배실을 갖추고 있다.

천주교

천주교는 해방 후 한때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기독교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 평양에는 1988년에 세워진 장충성당이 있다. 현재 정식 신부서품을 받은 사람은 없다.

불교

사찰은 평양 광법사, 묘향산 보현사 등 전국에 약 60개 정도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사찰에는 승려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신 관광객을 위한 안내원이 절을 관리한다.



봉수교회



장충성당



보현사

9. 주요 명소

평양에는 개선문, 모란봉,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교예극장, 인민대학습당, 동명왕릉, 단군릉, 대동문 등의 둘러볼 만한 곳이 있다.

개선문은 높이 60m로 평양시 모란동구역 개선동에 있다. 광복 후 김일성의 귀향을 기념해서 축조했다고 하며 평양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올 때 지나게 된다.

모란봉은 모란봉구역 동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 금수산이라고 하였으나 생김새가 모란꽃처럼 생겼다하여 모란봉으로 명명되었다. 고구려 유적으로 내성, 외성, 을밀대, 칠성문, 청류정, 부벽루, 전금문, 현무문, 동암문 등이 있다.



을밀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격체로 키우기 위하여 1989년 개관한 특별교육시설로 30만m²의 부지에 연면적 10만 3천m²의 규모로 어린이 12,000명이 60여 개의 소조실에서 활동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학생들의 소조활동

평양교예극장은 청춘거리와 광복거리가 만나는 곳에 1989년 준공된 거북이 모습의 건물로 총좌석이 3,500석 정도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데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공연한다.

인민대학습당은 김일성광장을 바라보고 위치해 있으며 중앙 도서관의 기능을 한다. 책을 대여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강연도 있으며 토론회도 진행되곤 한다.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광장

동명왕릉은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에 위치한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으로 1993년 5월에 개축하였다. 160여개의 화강석 기단돌이 떠받치고 있는 웅장한 무덤과 사람과 짐승을 형상화한 수십 점의 돌 조각품들이 있다. 넓은 능 구역에는 온달묘, 신하 무덤들, 진주못 등이 있다.



동명왕릉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에 위치한다. 피라미드 모양의 9단 흰색 화강암으로 조성된 능으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입구에서부터 40m 정도의 넓은 화강암 계단을 따라 능으로 올라간다. 계단 양쪽으로는 단군의 신하 8명의 입상이 있고 위쪽에는 4명의 아들을 조각한 입상이 있다.



동명왕릉 입구



단군릉

대동문은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평양성과 함께 6세기

중엽에 세워졌다.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문으로 평양성의 성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문이었다.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 위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북판에 무지개문을 났으며 대동문의 합각 지붕은 마루선과 지붕면이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대동문

10. 귀환 준비

가능한 귀환일 전날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하는 것이 편리하다. 숙박비와 통신비, 호텔 내에서 미지급된 비용을 정산한다. 같은 일행일 경우 객실에서 각자가 사용한 개인비용(세탁비, 전화비, 식음료비 등)을 누가 정산할 것인가에 혼선이 없어야 출발시간이 지체되지 않는다.

북측 초청기관에게 주는 차량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산하는 것이 편리하며 필요할 경우 영수증을 요청하면 북측 안내원이 영수증을 작성해 준다. 협력사업을 위하여 인수확인서, 분배확인서 등 관련 문건 수령이 필요할 경우 출발일 전날 모두 전달 받아야 한다.

도착 첫날 북측 안내원에게 맡긴 여권, 비자, 항공권을 모두 돌려받고 확인한다. 특별히 북측 비자는 여권과 따로 발급되어 출국 시 평양공항에서 회수하므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항공권과 함께 평양공항 이용료 영수증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평양공항에 보관시킨 경우에는 보관증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2 금강산 지역

1. 숙소

금강산 관광특구 방문자는 크게 관광객과 사업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금강산 특구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고성향 인근의 생활단지에서 숙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소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금강산호텔

만물상코스의 초입에 위치한 금강산호텔은 북한의 외국인 전용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2004년 7월에 개관한 특급호텔로서 북측 봉사원이 직접 서비스한다. 지상 12층의 본관건물과 봉래동, 풍악동, 설봉동의 3개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15실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편의 시설로는 로비라운지, 마사지실, 세미나실, 나이트클럽, 포장마차가 있다. 하늘라운지라는 이름의 스카이라운지와 소극장 및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있다.



금강산호텔

호텔해금강

금강산 관광특구 고성향 지역에 위치한 특급호텔이다. 호텔해금강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호텔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귀빈실, 가족실, 고급실, 일반실 등 총 16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호텔 내에는 레스토랑, 로비라운지,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호텔해금강

외금강호텔

1991년에 북한 주민을 위해 세워진 '김정숙 휴양소'를 리모델링하여 2006년 7월에 개관한 숙박시설로서 온정각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총 12층에 173실 규모로 귀빈실, 일반실(침대/온돌)이 있다. 부대시설로는 세미나실과 연회실, 스카이라운지, 로비라운지, 마사지실, 기념품점 등을 갖추고 있다.



외금강호텔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 고성향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금강패밀리비치 호텔은 2005년 8월에 개장되었으며 호텔식 객실과 콘도식 객실

등 총 96개를 갖춘 지상 5층의 종합 숙박단지이다. 편의시설로 한식당과 노래주점, 북측주점, 마사지실 등이 있다.

금강팬션타운

호텔해금강의 맞은편에 위치한 금강팬션타운은 8평형 12개 동, 15평형 14개 동, 20평형 8개 동 등 전체 3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8평형은 단층, 15평형과 20평형은 2층 건물이다. 단지 내에는 매점이 있고 고성향 횃집과 호텔해금강이 인접해 있어 도보로 이동하여 이용 할 수 있다.



금강팬션타운

구룡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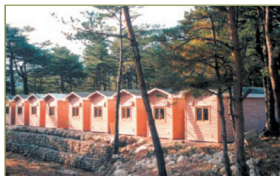
중·고·대학생 및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온정각 동관 바로 옆에 조성된 숙박시설로 2005년 3월에 개장하였다. 총 197동이며 각 동마다 4~6명이 사용할 수 있고 샤워장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숙소 단지 내에는 편의점이 있으며 인접한 온정각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학생 및 성인 단체 관광객의 숙소로 금강산온천 옆에 있다.



온천빌리지

총 65개동으로 1개동에 4인이 숙박할 수 있으며 샤워장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숙소 주위에는 금강산온천과 매점, 식당, 호프주점이 있다.

금강카라반

금강카라반은 캠핑카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로 금강팬션타운 옆에 있다. 공동 샤워장과 화장실을 사용한다. 아침식사는 금강패밀리비치호텔 1층에서 하며 인접한 호텔해금강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변마을

해변마을은 고성향에 위치한 금강산 해수욕장 내에 해변을 따라 늘어선 20개동의 몽골식 텐트로 이루어진 숙박시설로 하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해변마을 주변에는 개인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촌이 있으며 편의점이 있다.

금강빌리지

금강산 고성향 주변에 자리한 금강빌리지는 금강산 특구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사업차 금강산을 방문하는 사업자들의 생활단지이다. 1실에 2~6인이 숙박할 수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단지 내에는 근로자들의 전용식당과 다목적 공간인 해피테리어, 탁구장, 헬스장, 편의점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2. 식당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 식당과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하루 전 또는 늦어도 당일 아침까지는 식권을 구입해야 한다. 남한의 식당들과는 달리 미리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식권은 온정각 문화회관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정각 관광식당

온정각 휴게소에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관은 북한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야채와 뷔페식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동관은 남한과 북한식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퓨전요리 전문점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 남한의 술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점이 있으며 2층에는 고급 커피숍이 있다.



온정각 동관



온정각 서관

금강산호텔 식당 (남북 공동운영)

북한 요리사가 직접 요리한 북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온정각 관광식당

호텔해금강 식당

다양한 해물 요리와 생맥주를 파는 레스토랑이 있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

외금강호텔 식당

1층에 다양한 가격대의 코스 요리와 각종 일품요리를 즐길 수 있는 중식당이 있으며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양식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호텔 주차장에는 '온정봉사소'라는 북측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있다

옥류관(남북 공동 운영)

평양 옥류관이 2005년 9월에 낸 분점으로 평양에서 파견된 주방장이 직접 요리를 한다.

금강원(북한 식당)

담백한 북한 음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금강산호텔 정면을 기준으로 할 때 좌측에 있다. 북한 식당 중 수준급의 음식과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다.



금강원

목란관(북한 식당)

구룡연의 절경을 감상하며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냉면과 비빔밥이 주 메뉴이다.



목란관

단풍관(북한 식당)

삼일포 호수를 감상하며 간단한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남측 민간단체와 북측 기관과의 금강산 실무접촉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단풍관

고성향 횃집

북한의 싱싱한 자연산 활어와 해산물을 북측 봉사원들의 서비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탈계찜이 특선 메뉴이다.



고성향 횃집

3. 상점

온정각 휴게소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온정각 휴게소는 자연미를 한껏 더해주는 목조 건물로 식당, 쇼핑공간,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진귀한 북측 상품과 외국 명품(면세)을 쇼핑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의 중심이다.



온정각 상점

면세점(온정각 동관)

온정각 동관 1층 255평의 넓은 매장에 세계 각국의 유명 화장품, 향수, 양주, 담배 등을 면세로 판매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한다.



온정각 면세점

북한 상품 판매점(온정각 동관)

현대아산이 직영하는 북한상품 전문점으로 면세점 내에 위치하며 북한 주류와 담배, 건강식품, 공예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점(온정각 서관)

남측 기념품 업체가 제작한 핸드폰 줄, 액세서리, 지갑, 시계 등 금강산 특별 관광기념품을 판매한다.

편의점

편의점은 온정각 서관, 구룡마을 옆, 금강빌리지 내에 있다.

사진관

사진관은 온정각 서관 옆에 있으며 관광노정 기간동안 사진사가 찍은 사진의 구매와 즉석 인화가 가능하다.

농협

농협은 온정각 서관 옆에 있으며 환전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출금은 금강산 현지에서만 통용되는 계좌이며 송금 등의 온라인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분식점

분식점은 온정각 서관의 농협 옆에 있으며 라면, 떡볶이 등의 분식과 스낵,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4. 교통

금강산 지역 내에서 기본적인 이동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셔틀버스 구간은 온정각을 중심으로 금강산온천, 금강산호텔, 호텔해금강 등의 각 숙소지역과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해금강 등의 관광코스로 운행한다. 각 구간마다 셔틀버스 탑승 장소와 운행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강산 내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은 '온정각~금강산온천~금강산호텔'에 이르는 구간과 '온정각~구룡빌리지' 구간, '호텔해금강~금강팬션타운~금강빌리지' 구간이며 이외의 구간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금강산 지역 내 통행시간은 06:00~24:00이며 이외의 시간에는 일부 영업장 차량과 지정된 셔틀버스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텔해금강~금강빌리지' 구간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다.

금강산 지역의 모든 이동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사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차량이 없이는 이동하기가 용의치 않다. 현지에서 오래 머물 예정이거나 이동이 많을 경우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금강산 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운행규정과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야간 안전운전 및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발 시 차량운전 금지 및 추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통신

금강산 지역에서는 남측으로 전화와 팩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이용할 수 없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온정각의 현대아산 사무실과 각 호텔이며 사용시간에 따라 통화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통화료는 남에서 북으로 연락할 때가 북에서 남으로 연락할 경우보다 약 3분의 1정도 더 저렴하다.

6. 통용 화폐

금강산 지역에서는 달러(\$)를 사용한다. 신용카드나 관광카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달러로 환율 계산되어 정산된다. 기본 단위는 1\$로 센트 단위의 거스름돈은 없으며 산행 시 북측 노점상들은 현금(\$)만을 받는다.

북한 지역은 해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할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전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남측의 원화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금강산관광카드를 충전해 사용하거나 온정각 서관 옆에 위치한 농협에서 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카드는 스티커 형식의 칩이 내장된 충전식 카드이다. 관광객의 경우에는 고성읍의 집결지에서 관광증을 수령할 때 관광증 뒷면에 스티커 형태의 칩이 부착되며, 사업자는 금강산 현지 온정각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강산의 온정각 휴게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은 기본적으로 원화로 하고 사용 시는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남한으로 돌아 올 때 카드에 남은 금액은 온정각 휴게소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금강산관광카드가 내장된 관광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관광조장이나 현지 직원에게 신고하면 분실된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7.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관광코스 내 경치나 온정각과 숙소주변에서의 촬영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북한 군인과 군사시설, 북한 마을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진촬영 역시 제한되어 있다. 길을 가다 만나는 북한 주민들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온정각 주변이나 숙소에서 만나는 북측의 봉사원, 관광코스 내의 북측 순찰원들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셋째로 차량이동 시에 차창 밖으로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북측의 시설물이나 북측 인원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북 전에 미리 북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8. 의료 서비스

여행 중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 바로 질병이다. 금강산은 주 관광코스가 산이므로 간혹 산행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코스 산행에는 관광조장 뿐만 아니라 북측 구급봉사대원들이 동행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인 응급조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배낭에는 응급조치 도구가 들어있다. 산행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사람들에게 알려 가까이 있는 조장, 구급봉사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강산병원온정각 문화회관 뒤에 있으며 체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에는 남한의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약품과 X-ray장비를 갖추고 있어 응급치료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금강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남한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9. 종교 활동

금강산 지역에서의 종교 활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특구 내에는 현재 교회와 절이 있다. 단 북측 봉사원과 순찰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및 포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 서적이나 관련 상징물 등의 반입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금강산 지역의 교회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단지인 금강빌리지 안에 위치해 있으며 기독교를 믿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상주하는 목회자는 없지만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구룡연 코스를 올라가는 도중에 신계사가 있다. 서기 519년(신라 법흥왕 6년) 보운 스님이 창건한 절로 내금강의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 중의 하나이다. **신계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으나 남북 불교계가 공동 복원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대웅보전이 복원되었고 2007년 10월 낙성식을 가졌다.



신계사

10. 전기기구 사용

금강산 지역의 전압은 220V로 전기기구 사용에 문제가 없다.

11. 주요 명소

금강산은 크게 태백산 줄기의 동쪽 비탈면의 구룡연 구역과 만물상 구역, 수정봉 구역을 포함하는 '**외금강**', 금강산 계곡미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만폭동을 비롯하여 비로봉, 백운대, 명경대 등을 아우르는 서부지역의 '**내금강**', 삼일포와 해금강 구역, 총석정 구역 등을 포괄하는 '**해금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안내도

내금강 코스

내금강은 여러 갈래 계곡과 수많은 폭포와 소 등 우아한 여성적 계곡미가 일품인 곳이다. 또한 장안사, 표훈사, 보덕암, 마하연 등 유명 사찰과 다양한 문화유적이 많아 금강산의 절경뿐만 아니라 문화유적 체험이 가능하다.



내금강 코스 산행로

너럭바위가 깔린 개울 바닥 위를 기세 좋게 흘러온 물이 사람이 우는 소리와의 같이 굽직한 소리와 함께 떨어진다는 **울소**, 8군데의 선경(仙境) 입구 중 하나로 만폭동 입구에 있는 **금강문**, 금강문부터 화룡담까지 금강산 계곡의 절경을 대표하는 구역으로 **만폭팔담**, 진주 폭포, 분설폭포, 관음폭포 등 수많은 폭포들과 소들이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만폭동**(萬瀑洞) 등이 장관이다.

또한 북측 천연기념물 제232호(남측 천연기념물 제43호)로 1종이 존재하는 학술적으로 의의가 큰 희귀식물인 **금강국수나무**와 8, 9월에



울소



금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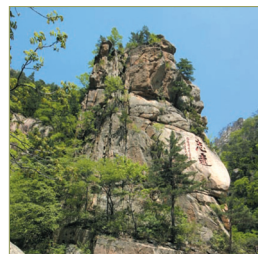


만폭동

종(鐘) 모양의 자주색 꽃이 피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금강초롱**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위치와 전망이 내금강의 중심부라 일컬어질 만큼 비경으로 유명하며 금강산 4대 사찰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찰로 신라 문무왕 10년(AD 670년)에 창건된 **표훈사**, 표훈사 서쪽 1km에 위치하고 신라 시대인 AD 600년 창건됐으며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의 배경이 된 곳인 **정암사**, 신라 23대 법흥왕의 지시로 승려 해량이 AD 551년에 창건한 사찰로 유점사와 더불어 금강산 2대 사찰로 꼽히는 **장안사** 등의 사찰이 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 백미로 꼽히는 '금강전도'의 배경으로 해발 800m에 자리해 내금강 47개의 봉우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혈성루**, 장안사터에서 약 2km 떨어진 삼불암교를 지나 위치하는 높이 8m, 너비 9m의 마애불인 **삼불암**, 만폭팔담의 분설담과 진주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AD 627년 고구려시대에 세워졌다 소실된 후 17세기에 재건된 **보덕암**, 마하연 근처 높이



금강대



금강국수나무



표훈사



정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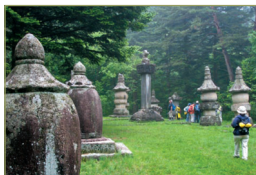
삼불암



보덕암



묘길상



부도탑

15m에 귀의 길이가 1.5m, 손발의 길이가 3m에 이르는 거대한 마애불인 **묘길상**,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하였고 수려하고 오묘한 경관 덕택에 세속을 떠나 수도하는 수행도량으로 유명했던 **마하연** 등도 둘러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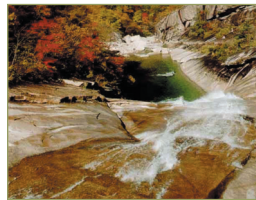
금강전도

구룡연 코스

경쾌하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사시사철 푸른 담과 소를 감상할 수 있는 구룡연 코스는 외금강을 대표하는 관광코스이다. 산행시간은 상팔담 코스를 포함해 왕복 약 4~5시간이다.

목란관에서 시작되는 구룡연 코스는 절경으로 널리 알려진 구룡폭포와 구룡연, 상팔담, 비봉폭포를 비롯하여 연주담, 옥류담 등 유명한 폭포와 연못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서 계곡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계곡이 많은 만큼 아름다운 다리들도 많으며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계곡과 담소들의 풍경이 옥구슬을 모아 놓은 듯 맑고 청량하다.

약수터 위에 노루소와 산삼밭이 있어 약수터로 산삼과 녹용 섞인 물이 흘러내린다는 **삼록수 약수터**, 수정을 녹인 물처럼 맑고 푸른 담소의 **옥류담**,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가 구슬 2개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만들어 졌다는 **연주담**, 금강산 4대 폭포 중 하나인 **비봉폭포**, 150m의 깎아지른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구룡폭포**, 금강산을 지키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구룡연, 구룡폭포 위로 담소 8개가 이어져 있는 **상팔담** 등이 있다.



구룡연



구룡폭포



상팔담

만물상 코스

금강산의 웅장하고 기묘한 산악미를 대표하는 왕복 약 4시간 정도의 관광코스로 이 구역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잘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한다. 위로 오를수록 나무보다는 뾰족한 돌들이 많아 비나 눈이 온 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계절폭포를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 만물상 코스의 묘미는 그 이름처럼 만물의 모습을 닮은 바위와 봉우리를 보는 데 있다. 봉우리 구경을 하면서 코스의 끝인 망양대에 서면 깎아지른 듯한 산봉우리들이 발밑에 있어 온 천하를 얻은 듯하다.



만물상

약 30m 높이의 봉우리 세 개로 이루어진 **삼선암**은 '선선 세 명이 돌로 굳어졌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바위이다. 가로로 쪼개진 7자의 바위가 겹쳐진 **칠층암**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칸이 일곱 개이다. 칠층암을 잘 보면 뾰뚱하는 원앙새, 등을 돌리고 있는 물개, 오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물을 마시면 '새 힘이 솟아 짚고 올라온 지팡이도 잊어버리고 단숨에 산을 오를 수 있다'는 **망장천**이 있다. 석간수라 물이 매우 적게 나온다.

하늘문은 금강산 5대 돌문 중의 하나로 이 문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 같은 신비로움이 앞선다. **천선대**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나 좋아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 돌아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지봉 끝에 위치한 **망양대**는 세지봉 줄기에 있는 온갖 형태의 기암괴석들과 서쪽 오봉산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좋은 곳이다. 동해와 해금강 일대의 섬들은 물론 남한의 산들도 조망할 수 있다.

삼일포, 해금강 코스

삼일포는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하나인 이름난 호수로 그 풍경이 으뜸인 곳이다. 옛날 신라의 한 왕이 하루만 머물다 갈 것을 삼일을 묵게 되어 삼일포라 했으며 물이 맑아 선인들은 마치 '선녀가 떨어뜨린 거울과 같다'고 했을 정도다.



삼일포

해금강은 동해안에 펼쳐진 금강산으로 해안가의 기묘한 절벽들과 소나무가 우거진 많은 바위섬 등은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다.



해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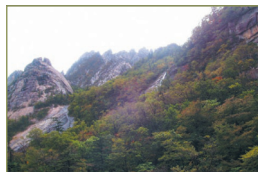
삼일포와 해금강 관광시간은 각각 1시간이다. 바위산인 **봉래대**는 삼일포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다. 16세기의 시인이며 서예가인 양사언 선생이 이곳에 와서 공부했다고 하여 그의 호를 따 '봉래대'라 하였다. 삼일포에서 보면 5개의 바위들이 연꽃 모양을 하고 있는 **연화대**가 있다. 이곳에 오르면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을 볼 수 있으며 연화대 바위 위에 세워진 연화각이 운치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와우도**가 있는데 소나무가 많아 '송도' 혹은 '솔섬'이라고도 한다.

동석동, 세존봉 코스

집선봉과 세존봉 사이의 계곡 지역으로 집선봉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보며 산행할 수 있는 코스다.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적어 금강산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동석동은 금강산 코스 중에 가장 나무가 많다.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잠시 산책하기에 좋고 여름이면 하얗게 드러낸 바위 위로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한 곳이다.



동석동



세존봉 전망대

세존봉은 경사가 심해 비교적 어려운 코스이지만 정상에 세존봉 전망대에서는 비로봉과 해차봉, 구룡대, 관음연봉을 비롯해 고성향, 동해 바다까지 볼 수 있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올라도 좋은 곳이다.

영춘대라 불리는 너럭바위 위에 큰 흔들바위가 있다. 지렛대를 쓰면 바위가 흔들린다 하여 **동석**이라 하는데, 그늘 아래서 잠시 쉬 어가기에 좋다. 산행 길 초입에서 산사면 위에 자리한 ‘쪽배’ 모양의 바위인 **배바위**를 볼 수 있다. 맞은 편 다리 위에서 보면 배 정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배바위에 오르면 집선봉과 채하봉을 바라볼 수 있다. 20m의 길이를 자랑하는 **백련폭포**는 경사가 심한 너럭바위 위를 흐르는데 마치 흰 비단을 드리운 것처럼 아름답다. 이를 이은 **환선폭포**는 그 흐르는 소리가 신선을 부르는 듯하다.

동석동을 거쳐 계속 산행을 하다보면 **집선연봉**을 볼 수 있는데 병풍같이 반듯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다.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영선대, 강선대, 승선대가 있다. 세존봉 코스의 정상에 오르면 **세존봉 전망대**가 있다.

수정봉 코스

수정봉은 온정리 북서쪽에 솟은 높이 773m의 봉우리로 특이한 절경을 갖춘 곳이며 수정이 많은 곳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수정봉은 세존봉보다 등정 소요 시간이 짧지만 정상에서의 전망은 세존봉 못지않아 인기가 있는 코스이다. 만물상 입구에서 수정봉까지는 왕복 3~4시간이 걸린다.

와우폭포는 비가 오면 누운 폭포, 활포가 되는 수정봉 코스의 첫 번째 폭포이다. 폭포 위에는 너럭바위가 있어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쉴 수 있다. 여기서 한참 오르면 또 하나의 계절폭포가 있는데 길이가 100m 이상 되며 세 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 **삼단계절포**라고 불리고 있다. 삼단계절포를 지나 오르다 보면 수백 년을 산 것 같은 커다란 소나무들이 있다. 그 왼쪽 수정봉 능선으로 자라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힘껏 고개를 들고 기어오르는 모양의 **자라바위**를 볼 수 있다.

수정봉으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수정문**은 금강산의 자연돌문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반짝이는 수정 알갱이가 무수히 박힌 수정문은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m가량 되는 통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수정봉 전망대**는 수십 명이 앉을 만한 너른 바위로 수정봉 주위의 그림 같은 경관을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다.

금강산 해수욕장

금강산 해수욕장은 고성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청정 바닷물과 1.2km의 고운 백사장을 자랑하며 2003년에 개장하였다. 병풍처럼 둘러싼 아름다운 금강산을 바라보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강산 해수욕장

해수욕장에서 개인 텐트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환경보존과 안전을 고려하여 일체의 취사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통상 매년 7월 초순에 개장하여 40~50일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백사장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금강산 온천

금강산 온천은 온정리(溫井里)란 지명이 말해주듯 예로부터 피부 질환, 관절염, 류마티즘, 고혈압, 신경통 및 피부미용에 효험이 있기로 유명하다. 지하 250m에서 용출되는 45℃의 100%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며 약한 방사능을 함유한 40℃의 중탄산나트륨으로 수질이 매우 부드럽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별탕과 다양한 사우나 시설 및 금강산을 조망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있는 대중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양의 조화를 위해 약 1개월에 한번씩 남탕과 여탕을 서로 바꾼다.

금강산교예단 공연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공연 중인 금강산교예단은 40일 단위로 공중교예를 포함한 수준 높은 교예 종목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일 1회 공연이나,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회 추가로 공연한다.



북한의 술

북한에는 민속술이 많다. 평양백로주는 소주 종류로 도수가 매우 높다. 남한에서도 조선식료무역회사가 만든 평양소주가 대량 수입되어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팔린 적이 있다.

맥주에는 룡성맥주와 금강맥주, 봉학맥주, 대동강맥주 등이 있다. 룡성맥주는 색깔이 진하고 맛이 달짝지근한 편이다. 630mm들이 병맥주가 인기가 높고 금강맥주는 350mm들이 캔으로도 판다.

북한은 맥주와 술을 따로 구분할 정도로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긴다. 북한의 오가피술이나 강계포도술 등은 40도 넘짓 되는데 북한의 술중에는 60도가 넘는 것도 있다.

개성인삼술이나 백두산들쪽술도 널리 알려진 술이다. 들쪽술은 손님맞이 술로 인기가 높다. 들쪽은 북한

지역에서 주로 나는 빨간 열매인데 특히 백두산이 있는 량강도의 특산품이다. 들쪽술은 15도, 25도, 40도 짜리의 세 종류가 있다.



강계포도술, 강계술, 아바이발효술, 대동강소주



들쪽술, 평양술, 인삼술, 고려인삼술, 각종 소주

1. 숙소와 식당

개성 지역의 숙박시설로는 자남산려관과 개성민속려관이 있으며, 대부분 이 여관의 식당을 이용하게 된다.

자남산려관

1984년에 개관한 4층의 현대식 숙박 시설로 1등실 1개, 2등실 4개, 3등실 38개 등 총 4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최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2인 기준으로 120\$~216\$ 이다.



자남산려관

자남산려관 식당

최대 3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일 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식사 요금은 일반식 7\$, 만찬식 20\$~40\$ 정도이며 북측과 협의하면 가격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제공된다.

개성민속려관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들이 밀집한 거리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89년 개장한 숙박시설로 온돌방에 전통침구를



개성민속려관

갖추었다. 총 50실로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요금은 자남산려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성민속식당

부지 2,530평에 연건평 1,050평의 조선식 기와 건물이며 개성민속려관의 부속식당이다. 반상기, 약호박밥, 고려인삼 닭곰탕, 약밥 등 개성 특산음식을 제공한다.

통일관

개성 남대문 인근 자남산 입구에 있는 민속요리 식당이다. 이 곳에서는 개성방식(반상기), 개성보쌈김치, 인삼닭곰탕, 개성약밥 등을 맛볼 수 있다.

평양 고려호텔 평양랭면

자남산 근처(선죽교 옆)에 있는 식당으로 2006년 3월부터 영업 중이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운영하는 분(分)식당으로 냉면 한 그릇에 10\$이다.

2. 통용화폐와 상점

미 달러(\$)가 쓰이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기념품은 자남산려관 및 민속려관 매점, 고려박물관 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3. 사진 촬영

필름카메라의 반입은 제한되고 디지털카메라만 반입이 가능하다. 차량이 이동중일 때 그리고 DMZ 등 남북 군사지역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관광지에서의 촬영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귀환 시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사진 확인(디지털카메라)을 요구한다.



4. 주요 명소

옛 고려 성균관은 1988년부터 **고려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려 청자, 11세기 금속활자, 각종 부도, 석등 등 1,000여점 가량의 고려시대 유물이 4개의 전시관과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고려박물관 전시유물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다는 **송악산** (488m)과 **박연폭포**(37m)가 있는 **천마산**, 조선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의 배경이 되는 **만수산** 등이 유명하고, 고려 말 충신 정몽주가 피살당한 **선죽교**와 그가 살던 집터에 조선시대에 세워진 **송양서원**이 있다.



왕건왕릉

이 밖에도 **왕건릉**과 **공민왕릉**, 고려 왕조의 궁궐터인 **만월대**, 10세기경 세워진 **첨성대** 등 많은 고려시대 유적이 남아 있다.



공민왕릉

2005년 10월에는 남측 대한불교 천태종의 지원으로 고려 제11대 문종의 넷째 왕자였던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한 천년고찰 개성 **영통사**가 복원되었다.



영통사

1. 숙소

개성공업지구에서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나 현대아산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나 현대아산에 숙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1일 숙박비는 30\$~70\$ 정도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숙소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 중인 관리위원회 직원과 입주업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숙소

숙소는 임시청사 단지 내에 40개실, 관리위원회 아파트형 공장에 60개실이 확보되어 있다.

현대아산 숙소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내 숙소단지에 위치하며 현대아산 직원과 개성공업지구 건설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해 방문한 근로자들은 개성 도착 후 현대아산의 숙소 담당자로부터 숙소를 배정받을 수 있다.



현대아산 직원숙소

숙소는 2인 1실부터 6인 1실까지 208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숙소 내에는 TV,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다.

송악프라자

개성공업지구에 업무 출장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자는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송악프라자 이용이 가능하다. 지상 5층 규모에 총 객실 67실로 13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호텔 내에는 생활용품점, 기념상품점, 커피숍, 카페, 노래방, 식당, 당구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2. 식당

아라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아파트형 공장 2층에 위치한다. 최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직원과 일부 입주업체 직원들이 이용하고 조식부터 석식까지 1일 3식을 제공한다. 식사요금은 1식에 4\$ 이다.



아라코

개성관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내에 위치한다. 최대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현대아산 직원, 건설공사 근로자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3식을 제공한다.



개성관

봉동관(북측 식당)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최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1단계 개발구역 밖에 있어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하다. 봉동관에서 식사를 하려면 북측과 최소 2일 전에 협의하여 예약을 해야 한다. 식사와 함께 간단한 음주를 할 수 있고 노래방 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식사요금은 1식당 25\$~35\$ 정도 이다.



봉동관

평양식당(북측 식당)

송악프라자 2층에 위치한다. 총 124석으로 북측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사와 함께 간단한 음주를 할 수 있다. 식사요금은 1식에 5\$~20\$ 정도 이다.

3. 상점

편의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아파트형 공장 내, 그리고 송악프라자 내에 각각 편의점이 위치하며 술, 담배, 과자, 음료, 간단한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한다. 북측 봉사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침 8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는 달러화만 통용되고 1달러 이하의 거스름돈은 10센트 단위의 쿠폰으로 지급된다. 쿠폰은 편의점 중 개성점에서만 통용된다.

아리랑 매점(북측 상점)

북측 출입사무소에 위치한다. 북측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으로 북한 술, 담배, 토산품(버섯, 인삼 등)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남측 출입사무소 통과 시 술은 1인 1병, 담배는 1인 1보루까지만 면세되는 점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하며 토산품류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송악프라자 내 상점

- 송악마트(매점) : 담배, 음료 등 생활용품 판매
- 개성명물점 : 면세양주, 공단생산물, 기념품 판매
- 박연폭포 : 커피숍 겸 호프
- 기타 : 황진이(노래방), 당구장

4. 통용 화폐

개성공업지구에서는 현금은 달러(\$)만 사용되며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



우리은행

5. 통신

2005년 12월 28일에 통신망이 개통되어 남북간 직통전화가 가능하다.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전화를 걸 때는 '089-국내번호'를 사용하고 남쪽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를 걸 때는 '001-8585-0000'로 하면 된다.

공단 내 전화 설치비는 회선당 100달러이며, 이용요금은 기본료 월 10달러, 공단 내 통화는 3분당 3센트, 공단과 남쪽 간 통화 요금은 분당 40센트이다.

6. 의료 서비스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에 위치한다. 남한의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사)가 2005년부터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남북측이 각각의 건물에서 각측 근로자를 진료하였으

나, 2007년 4월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을 개원하여 그린닥터스와 북측 종합진료소의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119평)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료인력은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우리 근로자 대상 진료)이 6명(의사 3명,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북측 종합진료소에 16명(의사 8명, 간호사 6명, 운전기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 개성공단에 가장 가까운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현대아산 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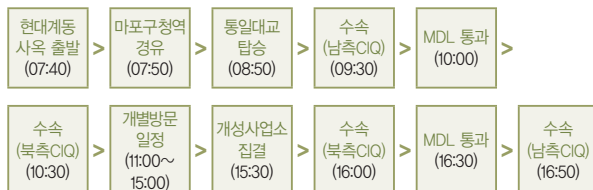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내에 위치한다. 북측의 의사와 간호사가 북측 인력을 중심으로 간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개성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7. 개성공단 방문 및 귀환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도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남측 도라산 출입사무소(CIQ)에서 출입·세관·검역 심사를 받고 북측 출입사무소(CIQ)에서도 출입·세관·검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의 왕래는 왕복버스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승인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개성공단 왕복버스 이용

- 운행 : 일 1회 왕복, 주 6일(월~토)
- 서울→개성 : 오전 7:40, 현대 계동사옥(비원주차장) 출발
- 개성→서울 : 오후 15:30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출발, 18:10 서울 도착
- 입·출경 시간
 - 평일 : 출경 10:00, 입경 16:30
 - 토요일 : 출경 10:00, 입경 14:00



사전에 승인된 자가용 이용

방북할 때나 귀환할 때 모두 당일 출입계획서상 군사분계선(MDL) 통과 최소 30분 전까지 남측(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경의선(통일대교에서 개성까지 12.1km의 연결도로)은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에 맞춰 대략 30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다.

8. 주요 기구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는 남북간 직접 거래를 확대시키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2005년 10월에 설치된 남북 당국간 상시적 협의기관으로 개성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남측사무소는 2층, 북측사무소는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품 전시실과 교육장은 1층, 남북회담장은 3층, 사업협의실과 기술협의실은 2층과 4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남북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대북 교역·투자 등에 대한 알선·상담·자료 제공, 남북 민간 기업간 사업 협의 지원, 문건·건본 송달 중개 등이다.

협회사무소에서는 남과 북의 인원이 함께 일하면서 남북 경험 활성화를 위해 경험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래 남북 민간기업간 거래가 제3국(중국 등)을 통한 간접거래 방식에서 협의사무소를 통한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북간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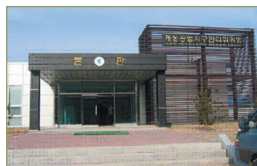
- 소재지 : (개성)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내
- 연락처 : (개성) Tel 001-8585-2100, Fax 001-8585-2109
(서울) Tel 02-2076-1183~4, Fax 02-778-7354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내용

단계	계획수립	사업협의	계약체결	사업실행
지 원 업 무 내 용	사업계획서 전달			
	북측 사업상대자 알선			
	북측 희망사업 소개			
		초청장 발급 지원		
		사업자간 면담 지원		
		사업추진 관련자료 전달 중개 및 간접통신 지원		
		계약서 작성 지원		
			사업관련 견본 송달	
			계약서 문건 진위 확인	
				기술협의 지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2004년 10월 개소하였다. 다만, 북한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한에 위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측 인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각종 인허가 발급 및 투자경영 활동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관리위원회의 임무

-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지원
-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 남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 기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위임 사업

관리위원회 연락처

- 홈페이지 : www.kidmac.com
- 개성 사무소 : Tel 001-8585-2020, Fax 001-8585-2090
- 서울 사무소 : Tel 02-2095-5331, Fax 02-2095-5353

1. 묘향산 지역

묘향산은 우리나라 5대 명산의 하나이다. 금강산의 수려한 조각미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을 닮은 듯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 깊은 계곡,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계절에 따라 새소리, 물소리와 어울리며 절경을 이루고 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경계에 솟아 있으며 최고봉은 비로봉이다.

묘향산은 평양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평양에서 출발해 당일로 귀환해야 하는 경우 묘향산에 도착하여 국제친선전람관을 보고 묘향산 계곡 또는 향산호텔에서 점심을 하게 된다. 식사 후에 가벼운 산행을 할 수 있으나 당일 코스의 경우 산행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 오후 돌아오는 길에 입구에 있는 보현사를 간단히 구경하고 평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보현사 8각13층석탑

숙소

숙박시설은 향산호텔이 있으며, 삼각형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15층의 현대식 건물로 상점, 식당, 노래방, 당구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숙박 손님이 적을 경우 온수가 시간별로 제공된다.



향산호텔

참고하기 국제친선전람관 방문시 유의 사항

국제친선전람관은 김일성전시관과 김정일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하여 놓은 곳으로 1978년 완공됐다. 건물은 겉에서는 아담해 보이나 산속에 통로를 내어 전시실을 만들었다.

묘향산을 간다고 하면 안내원이나 북한 주민들은 넥타이를 매거나 구두를 신는 등 복장에도 매우 신경을 쓴다. 그들과 같이 정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운동복, 슬리퍼 등의 복장은 피하고 가벼운 산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옷을 입으면 무난하다.

전람관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전공한 해설 강사들로 전람관을 돌아보는 중간 소감에 대해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말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무난하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사진기 등은 입구에서 별도로 보관하게 되므로 내부 촬영은 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는 촬영하여도 무방하나 안내원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촬영하는 것이 좋다.



국제친선전람관

식사

주로 향산호텔 식당을 이용하거나 묘향산의 지정된 구역에서 야외 식사를 할 수 있다. 야외식사 주문은 향산호텔에 하며 호텔 의뢰원들이 봉사해 준다. 음식은 칠색 송어구이, 탕류와 나물요리가 있다.

교통, 통신

평양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국제전화는 향산호텔에서 교환원을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팩스 사용은 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가능하다.

통용 화폐

향산호텔이나 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등은 유로화(€) 또는 달러(\$)를 사용한다.

선물 구입

향산호텔 내의 상점, 보현사 또는 국제친선전람관의 기념품 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림, 꿀, 나물, 돌버섯, 적목공예품 등이 있다.

2. 백두산 지역

백두산은 양강도 삼지연군과 북서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높이 2,750m의 명산이다. 땅 위에 솟아 하늘에 닿을 듯한 웅장한 산세, 천만년 비바람에 깎인 벼랑의 만물상, 장엄한 천지,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웅장한 수림 등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산세를 자랑한다.

백두산은 또한 개국 설화가 숨쉬는 민족사의 발원지이며 국토의 최고 봉으로 한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영산이다.

백두산의 날씨는 연중 변화무쌍해 270일 이상이 안개와 구름에 덮여 있고 심한 기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천지, 밀영, 삼지연, 리명수 폭포와 백두산의 각 지구별 사진자료 등을 볼 수 있는 백두관 등을 둘러보면 좋다. 백두산은 산에 눈이 녹는 계절인 6월~9월 중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교통

백두산은 평양공항에서 백두산 삼지연공항까지 특별전세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삼지연공항에서 백두산 천지까지는 초청기관에서 준비한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천지



밀영



삼지연

숙소

대부분의 남한 방문객은 평양에서 백두산까지 특별전세기를 이용한 당일코스로 방문하게 되나 때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백수초대소나 배개봉호텔에 체류한다.



배개봉호텔

소백수초대소는 2층 콘도식으로 된 방갈로 28동(4개실 22동, 5개실 6동, 총 118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과 귀빈을 위한 숙소이다. 부대시설로는 식당, 영화관, 노래방 등이 있고 단지 내에 호수도 있으며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배개봉호텔은 배개봉 기슭에 자리 잡은 3층 호텔로 최근 신축한 1개동을 포함하여 2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150여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서점, 기념품 상점, 영화관, 당구장, 이발소 등이 있다.

식사와 선물 구입

당일로 방문할 때는 평양에서 도시락을 주문하여 가져가며 날씨가 좋으면 백두산 기슭에서 야외식사를 하기도 한다. 소백수초대소나 배개봉호텔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그 곳 식당에서 식사한다. 음식은 산천어 또는 칠색송어요리, 감자떡, 감자지짐, 갓김치, 산나물과 버섯요리 등이 유명하다.

선물은 배개봉호텔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때로 야외에 매대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3. 남포 지역

남포는 평안남도 남부에 위치한 북한의 주요도시 중 하나로 평양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져 있다. 중국의 청다오(청도), 톈진(천진) 등과 연결되는 국제항구이며 평남선(평양-남포)과 평안선(남포-온천)의 기착점이며 대동강을 이용한 해운이 발전한 교통의 요지이다.

2004년 1월 남포특급시로 바뀌었으나 다시 평안남도 소속의 일반시로 환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해갑문, 와우도, 덕흥리혁명무덤, 강서세무덤 등을 둘러볼만 하다.



서해갑문



강서세무덤



선원구락부

숙소

남포항으로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남포항 내에서만 체류하여야 한다. 숙소는 주로 남포항에 위치한 선원구락부를 이용하며 남포체육촌에서 와우도로 가는 길에 있는 항구호텔(방수 109개)도 이용할 수 있다.

선박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북측 안내원과 상의하여 운동, 낚시,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다.

식사와 선물 구입

식사는 선원구락부 식당에서 하며 주로 해산물요리가 많이 나온다. 특별히 원하는 요리를 주문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제공해 준다.

선물은 선원구락부 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북한산 술, 담배 등이 있다.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항구 내에서 사진 및 비디오촬영은 북측 안내원들과 미리 상의한 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항구는 촬영이 제한되어 있다.

4. 신의주 지역

신의주는 평안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며 국경 관문도시이다. 북한의 북서부 압록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교두를 통하여 중국 단둥시와 연결되어 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약 230km이다.



압록강 철교

신의주 지역에는 압록강 철교, 의주읍 삼각산 마루에 세워진 고려 시대 누정인 통군정 등이 알려져 있다.

입국 절차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단둥에서 신의주로 입국한다. 단둥-신의주 교두에 도착하여 중국 출국 수속을 하게 되며 교두에서 신의주 입국 시간은 중국과 북한의 협의에 따라 변동되기도 한다.

조종친선다리를 통과한 후 다리 입구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차를 세우면 모든 승객들은 하차하게 된다. 북측 초청기관 안내원들이 통행검사소로 마중 나오며 통행검사와 세관신고, 세관검열을 받은 후 입국한다.

숙소

숙소로 이용하는 압록강호텔은 신의주, 평안북도 지역에서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호텔로 1975년 개장한 4층 건물이다. 편의 시설로는 식당, 사우나, 당구장, 상점, 서점, 국제전화실 등이 있으며 부속 건물에 민족식당이 있다. 평양이나 다른 지역보다 호텔 밖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된다.



압록강호텔

식사

압록강호텔에서나 부속건물인 민족식당에서 주로 한다. 북한음식 특히 평안북도 특산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남문식당도 유명하다. 의주 남문 옆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로서 수용인원은 50여 명이다.

상점

압록강호텔 내 상점에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기념품 매대에는 중국산 물건이 많으며 우표, 화첩, 술, 담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교통, 통신, 화폐

압록강호텔 국제전화실에서 전화나 팩스 사용이 가능하며, 교통편은 북측 초청기관의 차량을 이용한다. 화폐는 호텔이나 외화상점에서 유로화(€)나 달러(\$)를 사용한다.

북한의 담배



당이나 정부의 간부에게 지급되는 고급담배로는 <금강산>, <서리꽃>, <아리랑>, <칠보산>, <평양>, <호랑이> 등이 있다. 이 담배들은 대성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고려호텔 등지에서 판매된다. 평양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 중간급 담배로는 <대극장>, <대동문>, <휘파람새> 등이 있다.

일반 주민들은 <해당화>, <갈매기>, <제비> 등을 주로 피운다. 그 보다 못한 사람들은 <말아초>를 피운다. 직장인은 필터가 없는 <해당화>를 한 달에 다섯 갑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군에선 하루에 <용광로>를 10개씩 지급한다. <인삼>, <홍란>, <홍초>, <만수대> 등 여과 담배는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도 호텔이나 외화상점에서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

2009년 현재 북한은 1직할시, 1특별시, 9도, 25시, 147군, 33구역, 2구, 267노동자구로 구성 되어 있다. 노동자구는 광산, 임·수산산업소, 공장, 기업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락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된 행정구역이다.

직할시·특별시·도	시	군
평양직할시		강남, 강동, 상원, 중화 ※ 구역 : 낙랑, 대동강, 대성, 동대원, 만경대, 모란봉, 보통강, 사동, 삼석, 서성, 선교, 순안, 승호, 역포, 응성, 은정, 중, 평천, 형제산
나선특별시		
강원도	원산 문천	고산, 고성, 금강, 김화, 법동, 세포, 안변, 이천, 창도, 천내, 철원, 통천, 판교, 평강, 회양
양강도	해산	갑산, 김정숙(신파), 김형권(풍산), 김형직(후창), 대흥단, 백암, 보천, 삼수, 삼지연, 운흥, 풍서
자강도	강계 만포 회천	고풍, 남림, 동신, 성간, 송원, 시중, 용림, 우시, 위원, 자성, 장강, 전천, 중강, 초산, 화평
평안남도	평성 개천 남포 덕천 순천 안주	강서, 대동, 대안, 대흥, 맹산, 문덕, 북창, 성천, 숙천, 신양, 양덕, 영원, 온천, 용강, 은산, 증산, 천리마, 평원, 회창 ※ 평안남도 구 : 청남 ※ 남포시 구역 : 항구

직할시·특별시·도	시	군
평안북도	신의주 구성 정주	곽산, 구장, 대관, 동림, 동창, 박천, 벽동, 삭주, 선천, 신도, 염주, 영변, 용천, 운산, 운전, 의주, 창성, 천마, 철산, 태천, 파천, 향산
함경남도	함흥 단천 신포	고원, 금야, 낙원(퇴조), 덕성, 부전, 북청, 신흥, 영광(오로), 요덕, 이원, 장진, 정평, 함주, 하천, 홍원 ※ 함경남도 구 : 수동 ※ 함흥시 구역 : 동흥산, 사포, 성천강, 해안, 화상, 흥남, 흥덕
함경북도	청진 김책(성진) 화령	경성, 길주, 명천, 무산, 부령, 새별(경원), 어랑, 연사, 온성, 은덕(경흥), 화대, 화성(명간) ※ 청진시 구역 : 나남, 송평, 수남, 신암, 청암, 포항
황해남도	해주	강령, 과일, 배천, 벽성, 봉천, 삼천, 송화, 신원, 신천, 안악, 연안, 웅진, 용연, 은율, 은천, 장연, 재령, 청단, 태단
황해북도	사리원 개성 송림	곡산, 금천, 봉산, 서흥, 수안, 신계, 신평, 연산, 연탄, 은파, 인산, 장풍, 토산, 평산, 황주
1직할시 1특별시 9도	25시	147군 33구역 2구

참고하기

남북한 주요 생활용어 비교

북측	남측
가가	가게
가급금	보너스
가두녀성	가정주부
가마치	누룽지
가슴띠	브래지어
가시아버지 (가시아머니)	장인(장모)
각전	거스름돈
개시음악	시그널뮤직
거남길	산책로
건능길	횡단보도
게사니	가위
결바다	연해
공민증	주민등록증
고려약	한약
과일단물	주스
곽밥	도시락
교예	곡예(서커스)
꼬부랑 국수	라면
꿀신	슬리퍼
긴양말(여자용)	스타킹
긴장되다	모자라다
나들문	출입문
남새	채소
노래이야기	뮤지컬
능쟁이	명아주
다부작	시리즈

북측	남측
다리매	각선티
단고기	보신탕 (개고기, 개창)
단얼음	빙수
닭공장	양계장
담배칸	흡연실
도는 네거리	로타리
도레라	트레일러
동강옷	투피스
동글파	양파
뒤셈	검산
따라난병	합병증
딱친구	절친한 친구 단짝친구
떼레비통로	TV채널
되창문(되창)	환기창
뜨락또로	트랙터
돌힘	부력
랑동고	냉장고
렌트겐선	엑스레
려과담배	필터담배
료해하다	알다
맞혼인	연애결혼
매대	판매대
머리비누	샴푸
무더기비	폭우
물크림	스킨로션

북측	남측
미리막이	예방
바다목	해협
방거두매	방청소
보숭이	고물
복음머리	파마
부루	상추
부화사건	간통사건
빨래집	세탁소
사라구	썸바귀
사슬돈	잔돈
살결물	스킨로션
생동이	풋내기
선전화	포스터
소학교	초등학교
손기척	노크
손전화	핸드폰, 휴대전화
수표(하다)	서명(하다)
얼굴가리개	마스크
연구원	대학원
예술체조	리듬체조
외동옷	원피스
원주필	볼펜
위생실	화장실
위생종이	화장지
위생차	구급차
인민소비품	생활필수품
인차	이내, 곧

북측	남측
일없다	괜찮다
일떠서다	함차게 일어나다
자료기지	데이터베이스
잠나라	꿈나라
잠약	수면제
주글살	주름살
지은옷	기성복
직승비행기	헬리콥터
직장세대	맞벌이 가정
집단체조	매스게임
찔개(건건이)	반찬
차단소	검문소
차마당	주차장
창가림	커튼
체화품	재고품
컴퓨터	컴퓨터
풀거름	퇴비
필갑	필통
학사	석사
호상	상호
후방가족	군인가족
휴식일	공휴일

참고하기

통일부 연락처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02-2100-5780, 5802, 5811, 5813, 58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남북경협과	02-2100-5795~6, 5807, 5818, 5821~8, 5832
교역 및 수송관련 주민접촉·왕래 승인, 선박·항공기 등 수송장비 운행, 물자 반출·반입, 전략물자 대북반출 관리, 해운·항공·농수산, 지하자원·제조업, 도로·철도·항만·에너지, 금융보험 등 경제협력사업 및 제도개선 등	
사회문화교류과	02-2100-5841~8, 5854
사회문화교류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남북공동행사(6.15, 8.15), 지자체 교류·지원, 남북간 문화·예술·체육·종교·교육·학술·방송·언론·출판·관광 분야 교류협력	
인도지원과	02-2100-5803~4, 5806, 5808, 5814, 5816, 5834, 5838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정책수립 및 집행,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접촉·왕래 및 물자 반출·반입 승인,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02-2100-5893~4, 5911~5, 5916~8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관련 정책수립·조정·협력 및 법령관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 금강산면회소 운영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	02-3783-7411~5, 7417, 7419, 7421
개성공단사업 종합 및 조정, 개성공단사업 관련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개성공단 관리기관 운영·지원, 개성공단 관련 협력사업 승인, 방북승인, 개성공단 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개발지원과	02-3783-7440~5, 7451~3, 7455
전략물자반출 심사체계 관리, 개성공단 관련 물자 반출·입, 개성공단 생산물 판로확대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제·금융 지원 대책 수립, 아파트형 공장 운영 지원, 전력·통신 등 기반 시설 지원, 건설 관련지원대책 수립, 개성공단내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운영협력팀	02-3783-7432, 7435~7, 7439, 7446, 7448
개성공단 관련 법제 정비계획 수립·지원, 개성공단 법제 정비, 입주기업간 분쟁조정 법적 지원, 개성공단 관련 노무관리 및 보건위생 지원,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추진, 편의 시설 운영 지원	

참고하기

통일부 연락처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	031-950-5020~4, 5030, 5032~4, 5050, 5052~6
남북출입계획 총괄·조정, 제도개선, 출입시설 유지 관리	
경의선운영과	031-950-5060~4, 5040, 5070, 507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계획 수립·시행, 북한방문 신고수리 확인 및 임시방북증 발급	
동해선운영과	033-680-5004~10, 5013, 5017
동해선 남북출입계획 총괄·조정, 방북신고 수리 및 안내, 출입 시설 유지 관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	001-8585-2100
남북직거래 알선 및 상담,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실무적 협의 및 연락	
서울	02-2076-1182~3, 1185~8, 1190
남북직거래 알선 및 상담,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실무적 협의 및 연락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02-901-7173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 실시	
교육운영과	02-901-7052
방북 안내교육 실시	
교육개발과	02-901-7165
「북한방문 길라잡이」 발간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a yellow background. The page contains 20 horizontal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a yellow background. The page contains 20 horizontal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a yellow background. The page contains 20 horizontal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a yellow background. The page contains 20 horizontal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MEMO

북한방문 

발 행 일 2010년 3월 26일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Tel. 02-901-7165~6
Fax. 02-901-7088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